

최악 남부 가뭄에 영농철 농업용수도 '비상등'

전남 대부분 경계·심각단계
장성호 저수율 평년비 36% ↓
모내기철 다가오는데 '어찌나'
道, 광주호 방류 요청에 난색



완도군 보길면 부황제가 메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시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원뿐 아니라 영농철을 앞둔 농업용수마저 경고등이 커졌다.

20일 전남도의 농업용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저수율은 54.7%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년(30년 평균) 저수율인 64.8%와 비교하면 10.1%p 낮다.

도내 저수지 206개소도 물 부족 한계에 직면했다. 저수율이 40%~60%일때는 경계단계(심한 가뭄), 40%이하로 떨어질때는 심각단계(극심한 가뭄)로 설정된다. 현재 경계단계에 진입한 저수지는 모두 125곳, 심각단계도 81곳에 이른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를 차지하는 4대호의 저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주호, 담양호, 광주호, 장성호 등의 평균

저수율은 37.9%다. 광주호(70.0%)를 제외한 나주호(36.5%), 담양호(32.0%), 장성호(38.8%)의 저수율이 모두 심각단계다. 특히 1만1000ha 규모의 가장 많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장성호의 경우 평년 저수율(61.0%)보다 무려 36%가 감소했다.

전국 농업용수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54.7%)의 저수율은 제주(49.6%)에 이은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71.9%)과 저수율 90% 이상인 경기, 강원, 충남, 충북과 저수율 간극이 크다.

말라버린 하늘에 양파와 마늘의 생육도 더더, 향후 농산물 생산량 하락도 우려된다. 겨울철 발작물보다 더욱 시급한 건 올해 벼농사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6월부

터 당장 용수부족이 예상된다. 물 공급이 가장 필요해지는 5월 모내기 시기를 지나면 벼를 발육시켜야 하는 7-8월이 다가오는데 물이 부족하면 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도는 6월까지 예상 강우량이 평년대비 50% 미만일 경우 올 7월부터는 농업용수 부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향후 강수 전망도 어둡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전남 13개(목포·여수·나주 등 포함) 시·군은 오는 5월까지 가뭄 경계 단계로 분류됐다. 3개월 뒤에도 전남의 대다수 시·군이 심각한 가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여름 많이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우려한 농업용 물 부족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수지 준설, 물채우기, 양수장 설치, 관정개발, 송수관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이미 가뭄 장기화를 대비해 '용수 아끼기'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농업용수

의 타목적 활용을 전면 중단했다. 도내 골프장이나 공업용수에 사용하던 용수공급을 모두 중단하고,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하던 용수 3만6000톤의 공급도 모두 중단했다.

생활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광주시가 상황이 좀 나은 광주호(현 저수율 70.0%)의 농업용수를 영산강으로 일정량 흘려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전남도도 농업용수 부족이 현실화될 우려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마련돼 있지만 당장 올해에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남의 농업용수도 부족할 수 있다"며 "영농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면 용수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만큼 도내 저수율의 타 목적 활용을 모두 중단하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전남일보 '김홍탁의 브랜딩 클래스' 개강

첫 강의 성료... 총 10회 강좌
비즈니스 마케팅 등 지식 공유

전남일보가 주최하는 '김홍탁의 브랜딩 클래스(Branding Class)'가 20일 개강했다.

전남일보는 이날 오후 6시30분 본사 승정문화관에서 2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탁의 브랜딩 클래스' 첫번째 강의를 열었다.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가 강의하는 '브랜딩 클래스'는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인 브랜딩과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전 경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라는 테마로 이날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브랜딩 클래스'는 총 10차례의 강좌와 보너스 과정으로 짜여졌다.

강좌는 브랜딩, 콘셉트, 어드버타이징,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미디어 등을 주제로 지식공유와 실습, 평가, 발표회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과정 수료일에는 수강자들이 IR/회사소개서 등 브랜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는 이날 개강식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키우는 전략 수립은 마케팅 브랜딩 어드버타이징의 핵심 가치를 익히고 브랜드 기획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브랜딩 클래스를 통해 '사람을 읽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브랜드 기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알찬 강의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는 제일기획 마스터 출신으로 국제 광고제에서 100회 이상 수상 경력을 갖고



'김홍탁의 브랜딩 클래스(Branding Class)' 참가자들이 20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강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있는 광고마케팅 전문가다.

그는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빌

게이트 재단 심사위원, 서울시 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디지털비엔날레 자문위

원,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

했다.

곽지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